

디모데후서 3:16-17에 대한 설교학적 읽기:

임영호교수의 방법론을 따라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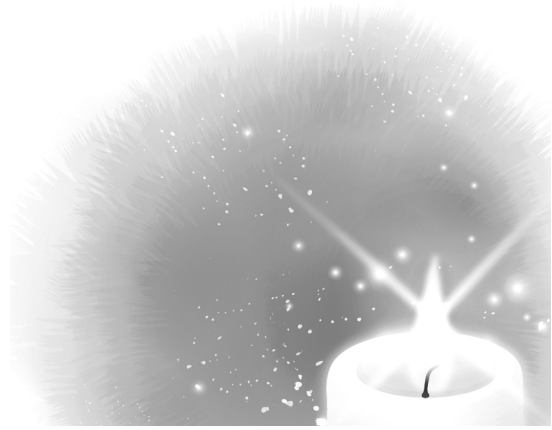
A Homiletical Reading of 2 Timothy 3:16-17

채경락

고신대 신학과 조교수

목 차

1. 들어가며 | 447
2. 펴는 글 | 449
 - 2.1. 설교자의 성경관 | 449
 - 2.2. 성경 해석 방법론 | 457
 - 2.3. 설교의 열매 | 469
3. 나가며 | 476



디모데후서 3:16-17에 대한 설교학적 읽기: 임영호교수의 방법론을 따라서

본 논문은 디모데후서 3:16-17에 대한 설교학적 읽기다. 실천신학의 기초는 성경이다. 성경 주석이 모든 신학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실천신학은 그 특성상 일반 학문의 방법론을 통섭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본 논문은 성경 주해에서 직접 실천신학의 원리를 획득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유일한 방법은 아니지만, 건강한 실천신학의 한 방법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16-17은 성경에 대한 말씀이지만, 있는 그대로 설교를 향한 지침이기도 하다. 성경을 가르쳐 온 사도 바울이, 그를 이어서 성경을 가지고 목회하고 설교할 후배 사역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문자적으로 본문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목회적 유용성, 그리고 성경이 추구하는 열매를 정리하지만, 설교자에게 적용하여 설교자의 성경관, 성경 해석 방법론, 그리고 설교가 추구할 열매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강해설교는 디모데후서 3:16-17의 설교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강해설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선포하는 설교다. 성경을 설교의 중심에 세우는 설교를 강해 설교로 부를 수 있지만, 이면에는 성경을 대하는 설교자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강해 설교자가 성경을 설교하는 이유는, 단지 성경이 좋은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성경을 향한 이 두려운 믿음이 강해설교자의 성경 해석과 설교 실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경으로 나아가는 설교자의 첫 자세는 기도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기에 평범한 읽기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은 설교의 지평을 일반적인 문법적, 문학적, 역사적 범주를 넘어서 구속사적 영역으로 확대한다. 인간 저자의 이해를 넘어 신적 저자의 의도가 성경을 영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적 저자가 인간 저자의 의도를 유기적으로 존중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해 설교와 구속사적 설교는 공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디모데후서 3:17이 정리하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있는 그대로 설교가 추구해야 할 열매이기도 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성경에 기초한 설교 역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성경을 들고 단에 오르는 설교자는 이 목표를 마음에 그리고 올라가서, 그 열매를 향해 선포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16-17이 정초한 설교의 이상이, 주의 은혜로 현실 강단에서 오롯이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A Homiletical Reading of 2
Timothy 3:16-17*

주요어

강해설교, 성경관, 신적 권위, 목회적 유용성, 설교의 목적.

Abstract

A Homiletical Reading of 2 Timothy 3:16-17

Prof. Dr. Chae, Kyoung Lak

This paper is a homiletical reading of 2 Timothy 3:16-17. The Scripture is the foundation of practical theology. Bible exposition is and must be the basis of all theological works. Practical theology is possible to make interdisciplinary use of the methodologies of general disciplines; this paper, however, attempts to extract principles of practical theology directly from biblical exegesis. Among other methods, this approach should also be established as a healthy method of practical theology.

2 Timothy 3:16-17 is focused on the Scripture, but is also in itself a guideline for preaching. This is made clear by the fact that it is a message from the apostle Paul, who taught and preached the Scripture, to Timothy, who would follow in Paul's footsteps. In a literary sense this passage sums up the divine origin of the Scripture, its pastoral utility, and the fruits the Scripture should pursue; to a preacher this can be applied to show one's view of the Scripture, interpretation methodology, and the basis of the fruits preaching should pursue.

Expository preaching can be considered a homiletical application of 2 Timothy 3:16-17. First, expository preaching

lies on the premise that the Scripture is the word of God. Normally a sermon that centers on the Scripture would be called expository preaching, but more crucial is the preacher's view of the Scripture. An expositor does not preach the Scripture simply because one thinks the Scripture is good; but all the more because one believes the Scripture, and only the Scripture, to be the God-breathed Word of God. This awe-inspired belief in the Scripture affects both the expositor's interpretation of Scripture and practical theology in general.

Because the Scripture is God-breathed, the first step a preacher takes toward the Word is prayer. Scripture written through divine inspiration can only be illuminated through the Holy Spirit. At the same time, because the Scripture was recorded by man's hand, it does not ignore ordinary reading principles. The fact that the Scripture is God-inspired extends the scope of a sermon from general grammatical, literary, and historical contexts to a redemptive-historical sphere. This is possible because the divine author's intent inspired the Scripture above and beyond the recognition of the human author. However, the divine author simultaneously respected the intent of the human author; so expository preaching in general and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must coexist and respect each other in harmony.

The purpose of writing the Scripture according to 2 Timothy 3:17 can in itself be seen as the objective of a sermon. The Scripture was recorded for the purpose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and, furthermor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A sermon founded on the Scripture must also pursue the same goals, and hope to bear meaningful fruit in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Every preacher speaking the Scripture must keep this objective in mind, and preach towards its fulfillment. This paper wishes that the homiletical principles grounded on 2 Timothy 3:16-17 be accomplished, through God's grace, fully in the pulpit.

Keywords | Expository preaching, view of the Bible, divine authority, pastoral utility, purpose of sermon.

1. 들어가며

실천신학의 길잡이도 성경이다. 주경신학이 성경 본문을 연구하고, 조직신학이 성경에 나타난 신학적 원리를 발굴 정리하듯, 실천신학의 근본 기초와 길잡이도 성경이다. 실천신학은 다른 일반 학문의 성과를 융합적이며 통섭적으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이때도 신학 작업의 근본 재료와 최종 판별자는 성경이다.

실천신학을 성경과 분리된 영역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 대표적으로 F. Schleiermacher는 “성경 본문이나 교의가 아닌, 인간의 종교적 경험 혹은 그리스도인의 자기 의식, 현실 상황을 [실천] 신학의 기본 자료로 삼았다.”¹⁾ 그에게 성경은 신적 권위를 가진 계시가 아니라 인간의 종교적인 성찰의 산물에 불과했다. 그러나 개혁 신학은 실천신학의 기초도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임을 분명히 한다. 본 논문은 교회의 모든 프락시스는 성경의 기초 위에 정립되어야 한다는 개혁 신학의 고백 위에 서 있다.

본 논문은 디모데후서 3:16-17에 대한 설교학적 읽기를 시도한다.²⁾ 본문을 설교학적 조망에서 설교학적 적용을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인데, 임영효 교수의 방법론을 따른 결과물이다. 임 교수는 실천신학도 성경의 바탕 위에 서야 한다는 개혁신학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를 본문 주석을 통한 실천신학 원리의 도출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천한다. 그는 예배학, 교회 성장, 기독교 교육, 진도방법, 크리스천 리더십 등 다양한 분야의 논문을 집필하였는데, 거의 예외 없이 특정한 성경 본문을 논문의 기본 자료로 삼는다.³⁾ 성경

1) 임영효,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 (서울: 영문, 2008), 22.

2) 임영효, “성경 교육의 중요성: 디후 3:15-17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제15호(2013): 133-91. 임영효는 동일한 본문을 성경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성경의 필요성과 권위, 성경의 독특한 역할과 추구하는 목표 등을 촘촘하게 분석하였다.

3) 임영효, “사도 바울의 사역관: 골로새서 1장 24-29절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제19호

본문에 대한 주석을 통해 실천신학적 원리를 도출하는 방식의 논문들이다.

이 방법론은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다. 먼저 모든 신학의 기초는 성경이라는 개혁신학의 원리에 충실한 실천신학을 전개할 수 있다. 실천신학의 기초가 성경이라는 확신이 단지 선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으로 구현되는 방식이다. 또한, 실천신학이 섬기는 주요대상인 목회자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방법론이다. 현장과 괴리된 신학은 그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데, 실천신학은 더욱 그러하다. 본 논문이 취한 방식은 목회자들에게 익숙한 성경 주해 방식이기에 쉽게 이해할 수 있고, 목회자들도 현장의 실천신학자로서 직접 작업에 참여할 수도 있는 방식이다. 물론 이 방법이 실천신학의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학문적인 완성도 면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있지만, 실천신학 작업의 의미 있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성경적인 실천신학을 추구함에 있어 본 논문이 다룬 디모테후서를 포함한 목회서신이 주요한 토양이 된다. 물론 실천신학이 목회서신에 고립될 필요는 없다. 성경 전체가 실천신학의 토양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⁴⁾ 그렇지만 이론적인 차원에서 목회서신이 실천신학의 중심에 설 필요가 있다. 사도 바울은 신학자이면서 현장 목회자였다. 본문의 수신자인 디모데는,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목회 현장에서는 후배 사역자였다. 성령님의 감동 안에서 선배 목회자 바울이 후배 목회자에게 목회적인 원리와

(2017): 287-321. “유다서가 보여주는 리더십개발의 원리”, 『고신신학』 제16호(2014): 219-81. “성경 교육의 중요성: 딤후 3:15-17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제15호(2013): 133-91.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엡 4:11-16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제13호(2011): 15-65 등 그의 논문은 대부분 실천신학적 주제를, 성경 본문 주석을 통해 완성해가는 방식이다.

4)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상대하는 방식과 신약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고 파송하시는 모습에서 우리는 권위적인 목회 원리를 발견할 수 있다. 선지자들의 말씀 선포, 모세와 다윗 등 하나님께서 세운 리더십들이 백성을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도 실천신학적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다.

자세 등을 전수한다. 특히 디모데후서 3:16-17은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인데, 설교자들이 성경을 어떤 자세로 대하고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발굴할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설교학적인 조망 안에서 본문을 탐색하려고 한다. 본문에서 유추할 수 있는 설교자의 성경관, 해석 방법론, 그리고 설교의 방식과 열매에 관한 원리를 정리할 것이다. 성경 주해에 바탕한 짙막한 설교론이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2. 펴는 글

2.1. 설교자의 성경관

디모데후서 3:16-17은 건강한 설교를 위한 설교자의 성경관을 정초한다.⁵⁾ 설교의 건강성은 구체적인 방법론 이전에 성경을 대하는 설교자의 인식과 태도에서 결정되는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선언적으로 가르친다. 성경이 이러한 책이니 설교할 때나 묵상할 때 그에 합당한 태도로 성경을 대하라는 가르침이다.

5) 변종길, “개혁주의 성경관”,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진, 『개혁주의를 말하다』(서울: SFC, 2011), 32-52. 변종길은 많은 신학자들과 동일하게 디모데후서 3:16에 의거하여 성경의 영감을 논한다. 그는 개혁주의 영감론을 셋으로 설명한다. 먼저 “성경의 사상뿐만 아니라 글자 하나 하나에 이르기까지 영감되었다”는 의미의 축자 영감(verbatim inspiration). 둘째, “성경의 부분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영감되었다”는 의미의 만전 영감(plenary inspiration). 셋째, 기계적 영감과 대비하여 인간 저자의 인격과 역량을 존중하셨다는 의미의 유기적 영감(organic inspiration)이다. 유기적 영감에 관하여, 인간 저자의 역할을 존중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도성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결론 짓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그의 도구로 완전히 사용하셨지만, 그들을 통해 기록된 성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본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성경의 출처와 용처다. 16a절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소개하고, 16b-17절은 성경의 용처에 관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책이라고 소개한다. 각각 성경의 신적 권위 (authority)와 목회적 효용성(utility)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할 수 있다.⁶⁾ 설교자는 이러한 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동일한 확신으로 강단에 올라야 한다.

2.1.1. 성경의 신적 권위(authority)에 대한 확신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해, 본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소개한다. 여기서 “모든 성경”은, 바울 당시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일차적으로 구약 성경을 의미한다. 그러나 구속사의 진전과 성령님의 사역의 연속성에 기초하여 우리는 신약 성경도 의미상 “모든 성경”에 포함된다고 고백한다.⁷⁾ 성경도 여느 책들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역사적으로 인간 저자를 특정할 수 있다.⁸⁾ 그럼에도 설교자는 디모데후서 3:16의 가르침에 기초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적 권위를 지닌 책이라고 고백한다. 이른바 이중 저자(double authorship)를 고백한다. 각 성경마다 인간 저자를 추적할 수 있지만, 성경은

6) Philip H. Towner,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Grand Rapids: Eerdmans, 2006), 585.

그는 “divine source and usefulness”라고 정리한다.

7)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2항은 “성경, 즉 기록된 말씀에는 신약약에 있는 모든 책이 포함된다.”고 선언한 후, 3항에서는 “흔히 ‘외경’으로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인간이 쓴 다른 글들에 비해 더 큰 권위를 지닌 것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 사용될 수 없다”고 선언한다. Robert Shaw, *An Exposition of the Confession of Faith - 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 조계광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서울: 생명의말씀사, 2014), 50-51.

8) 물론 인간 저자에 대한 논의가 확정되지 않은 성경도 더러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각 성경에 인간 저자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인간 저자의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고백인데, John Stott는 다음과 같이 풀이한다.

성경이 스스로에 대해 말하는 바에 충실하고자 한다면 성경의 인간 저자와 신적 저자를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신적 요소나 인간적 요소가 상대 요소를 제거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신적 영감은 인간 저자를 무효로 만들지 않으며 인간 저자도 신적 영감을 무효로 만들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인간의 말입니다.⁹⁾

“하나님의 감동으로”로 번역된 ‘*θεόπνευστος*(테오프뉴스토스)’는 성경에서 오직 이곳에서만 사용되는 독특한 단어다.¹⁰⁾ 바울이 이 대목을 위해 만든 신조어로 보이는데, 성경의 생산과정이 일반적인 언어로는 묘사하기 힘든 신비한 과정이었음을 암시한다.¹¹⁾ 하나님의 행하심을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성경은 수신자를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인간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 신중한 겸손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억지로 풀다가” 의도하지 않은 오해로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벧후 3:16).

William D. Mounce는 “하나님의 감동으로”는 “성경의 영감의 방식이 아니라 영감의 근원을 나타낸다.”고 이해한다.¹²⁾ 강세를 찍을 때 “감동”보다 “하나님”에 방점을 두는 독법인데, 본문을 이해하는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
- 9) John R. W. Stott & Greg Scharf, *The Challenge of Preaching*, 박지우 역, 『존 스토틀의 설교: 말씀과 현실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설교』(서울: IVP, 2016), 52.
- 10) William D. Mounce, *Pastoral Epistles*, 채천석·이덕신 역, 『목회서신』(서울: 솔로몬, 2009), 1068.
- 11) 황원하, 『목회서신주해』(교회와성경, 2014), 125. 그의 정리가 담백하면서도 정곡을 찌른다. “여기서 ‘감동’(inspiration)이 어떤 개념인지 우리는 모른다(참고, 벧후 1:21). 이는 성경이 기록될 때의 감동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12) Mounce, 『목회서신』, 1068.

본문은 하나님이 저자가 되는 방식 이전에, 하나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설교자가 견지해야 할 일차적 확신이 바로 여기에 있다. 성경은 신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인데, 건강한 설교자는 이 확신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이 확신으로 말씀을 선포한다.

이어서 “감동”은 성경의 생산 과정에 대한 묘사인데, 구체적으로 인간 저자와 신적 저자의 역할 관계를 지시하는 단어다. 감동의 의미를 정면으로 추적할 수도 있지만, 우회하여 바울이 쓰지 않은 표현을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바울은 성경이 ‘하나님의 손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쓴 것’이라고 표현하지도 않는다. 대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묘사하는데, 이는 소위 기계적 영감을 고백할 만큼 인간 저자의 역할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하나님이 성경 생산에 주도적으로 역사하셨지만, 인간 저자의 의지와 역할을 충분히 존중하셨다는 의미다. 개혁 신학이 고백하는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는 본문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명명으로 보인다.¹³⁾

요컨대, 개혁 설교자는 성경의 신적 권위를 확신한다. 인간 저자의 역할을 인정하지만, 신비한 감동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생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 성경의 신적 권위에 대한 확신은 건강한 성경적 설교의 출발점이 된다.

2.1.2. 성경의 목회적 유용성(utility)에 대한 확신

또한 디모테후서 3:16-17은 성경의 목회적 유용성에 대한 설교자의 확신의 기초가 된다. 설교자는 본문에 기초하여 성경의 목회적 유용성, 즉 성경이

13) 변종길, “개혁주의 성경관”, 43-47. 변종길은 개혁주의 성경관이 거절하는 잘못된 영감론의 네 유형을 소개하는데, 인간 저자를 단순한 받아쓰기 기록자로 보는 기계적 영감론(mechanic theory of inspiration), 성경의 일부만 영감된 것으로 보는 이원론적 영감론(dualistic theory of inspiration), 영감의 대상을 성경이 아니라 기록자로 보는 동력적 영감론(dynamic theory of inspiration), 그리고 영감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실행적 영감론(actualistic theory of inspiration)이다.

성도들을 목양하는 데 매우 유익하다고 확신한다. 그런 점에서 성경의 영감은 신학적인 논의를 넘어 목회적이고 실천적인 사안이다.¹⁴⁾ 설교자는 목회자다. 단지 설교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주의 백성을 목양하기 위해 설교한다. 설교자가 성경을 설교하는 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더불어 목회적 유용성을 믿기 때문이다. 성경은 유익한 책이고, 유익을 위한 책이다. 종교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책이 아니라, 목양적 유익을 위한 책이다. 그리고 성경이 품은 목회적 유용성이 열매를 맺는 주된 통로가 바로 설교다.

주님이 베드로를 통해 모든 설교자에게 주신 “내 양을 치라”는 목양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훈도 필요하고, 책망도 필요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한데,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성경이 유익하다고 선언한다. 16절 후반부에 열거된 동사들이 목양의 방법론이라면, 17절은 목양의 궁극적 열매를 소개한다. 목회적 설교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열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또한 본문 앞서 15절은 성경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선언한다. 요컨대 성경은 성도의 영적인 출생에서 시작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장성하고 성숙해가는 모든 목양적 과정에 유익하다. 설교자는 이 확신으로, 이 확신 때문에, 이 확신을 실천하기 위해 성경을 설교한다.

신적 권위와 목회적 유용성의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둘은 언어적으로는 분리될 수 있지만, 사실상 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접속사 “kai(카이)”를 문법적으로는 단순 열거로 볼 수도 있지만, 의미상 전자가 후자의 기초가 된다. 다시 말해, 성경은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목회적으로도 유익하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에 디모데의 목양 사역에 유익하다는 의미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독법이다. 요컨대, “성경의 유용성은 성경의 영감으로부터 나온다.”¹⁵⁾ 또한 성경의

14) Towner,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592.

15) Mounce, 『목회서신』, 1075.

신적 권위는 성경의 유용성을 신적인 절대적 유용성으로 확대한다. 바울이 말하는 성경의 유용성은 단지 성경‘도’ 유익하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인한 신적 권위에 기초하여, 다른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의 궁극적인 유익이 성경에 있다는 선언이다.

2.1.3.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을 향한 헌신(commitment)

성경에 대한 설교자의 확신은 오직 성경을 향한 헌신(commitment)으로 귀결된다. 성경 외에도 이 땅에는 나름 좋은 교훈과 정보를 제공하는 책과 자료들이 많이 있지만, 디모데를 비롯한 이 땅의 설교자는 오직 성경만을 설교한다. 디모데후서 3:16-17에 기초하여, 오직 성경만이 신적 권위를 가진 책이요, 최고의 목회적 효용성을 가진 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¹⁶⁾ 앞서 전자가 후자의 기초가 된다고 했는데, 후자가 전자를 뒷받침하는 증표가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에 목회적 효용성이 있지만, 거꾸로 성경의 목회적 효용성을 통해 성경의 신적 권위가 확인되기도 한다.¹⁷⁾

-
- 16) 종교개혁이 주창한 ‘오직 성경’은 신적 권위와 더불어 목회적인 유용성에 대한 고백이다. 변중길, “개혁주의 성경관”, 47-52. 변중길은 개혁주의 성경관이 견지하는 성경의 특성에 관하여 네 가지로 정리한다. 교회의 결정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그 신적인 성격과 진리됨을 드러낸다는 자증(*autopistia*), 성경은 명료하기에 적절한 읽기를 통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의 명료성(*perspicuitas*), 성경은 구원 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의미의 충족성(*sufficientia*), 그리고 성경이 구원과 우리의 삶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의 필요성(*necessitas*)이다.
- 17) 김영봉, 『설교자의 일주일』(서울: 복있는사람, 2017), 264-66. 그는 설교 중에 성도의 응어리가 풀린 인상적인 경험을 이야기한다. 그 성도에게는 오랜 원수가 있었는데, 한 동안 있고 살다가 하필 한 교회에서 만나 응어리가 되살아났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경청하고 있는데 50년 동안 그분의 가슴 중앙에 묻혀 있던 응어리가 마치 데워진 프라이팬에 놓인 버터가 녹아내리듯이 스스로 풀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설교의 영적인 파워에 대한 증언이기도 하지만, 그 설교가 기초하고 있는 성경의 신적 능력을 나타내는 사례로 볼 수도 있다.

‘오직 성경’의 원리는 강해설교로 구현된다. 해돈 **Robinson**이 정의한 대로, 강해설교는 특정한 설교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의 설교 철학이다.¹⁸⁾ 그는 강해설교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원리를 소개하는데, 첫 번째 원리가 “성경이 설교를 지배한다.”이다.¹⁹⁾ 강해설교자는 설교자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주관적 사상이 아니라, 성경 본문의 메시지를 선포한다.²⁰⁾ **Hershael York**는 **Robinson**의 주장을 전향적으로 수용하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강해설교는 “오직 성경만을 설교하겠다는 의지(commitment)”라고 정리한다.²¹⁾ 이와 같이 강해설교 이론가들은 성경적인 설교를 평가함에 있어 해석이나 설교의 형식

18) 강해설교를 특정한 설교 형식이나 방법론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상당수 설교 학자들은 강해설교를 특정한 방법론이 아니라 포괄적인 설교 철학으로 규정한다. 가장 널리 알려진 **Haddon Robinson**의 강해설교 정의는, 성경 본문에서 하나의 성경적 개념을 도출하고 이를 적용한다는 일반 원칙만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강해설교의 이름 안에 대지 설교도 가능하고, 내러티브 형식의 설교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어떤 형식이든 하나의 성경적 개념, 즉 본문에 충실한 하나의 중심 사상을 전한다면, 형식과 방법론에 상관없이 강해설교의 범주 안에 든다는 의미다.

19) **Haddon W. Robinson**, *Biblical Preaching*, 박영호 역, 『강해설교』 (서울: CLC, 2007), 23-36. 그가 제시하는 다섯 가지 원리는 첫째, 성경이 설교를 지배한다. 둘째, 하나의 성경적 개념을 전달한다. 셋째, 그 개념은 본문에서 나와야 한다. 넷째, 그 개념은 설교 자에게 먼저 적용되어야 한다. 다섯째, 그 개념은 청중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20) **Stott**, 『존 스토트의 설교』, 66. 이런 점에서 **Stott**는 모든 성경적 설교는 강해설교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진환, 『설교, 그 영광의 사역』 (서울: 프리셋트, 2013), 63-88. 한진 환은 설교의 형태를 시대적 유형별로 다양하게 구분하면서도 “강해설교를 여러 가지 설교 중의 하나로 분류하는 것에 만족할 수 없다. 모든 진정한 기독교 설교는 강해설 교”라는 **Stott**의 인식을 적극 수용한다.

21) **Hershael York**,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A Solid and Enduring Approach to Engaging Exposition*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3), 18-31. **York**는 강해설교자가 견지해 야 할 다섯 가지 헌신(commitment)을 소개한다. 첫째, 본문의 진리에 대한 헌신. 둘째, 모든 성경의 유용성에 대한 헌신. 다시 말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 기에 모든 성경이 유용하다는 고백이다. 셋째, 설교의 성격에 대한 헌신. 설교는 단지 이야기나 연설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넷째, 생각하기에 대한 헌신. 효과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생각의 흐름을 고려해야 한다. 다섯째, 저자의 의도 드러내기를 향한 헌신이다. 본문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는 다짐이다.

이전에 성경을 향한 설교자의 태도를 먼저 점검한다.

그런 의미에서 강해설교는 디모데후서 3:16-17에 기초한 “오직 성경” 원리의 설교학적 실천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설교자가 성경의 신적 권위와 목회적 효용성을 확신하고, 오직 성경을 설교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이 강해설교의 출발점이다. 강해설교 앞에는 생략된 두 글자 단어가 있는데, 성경이다. 말하자면, 강해설교는 곧 성경강해설교다. “강해”는 성경을 의미의 손상 없이 청중에게 전달하겠다는 설교자의 의지를 담은 방법론이다. 이 방법론의 기저에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설교 본문 선택에 있어, 신적 권위와 목회적 효용성에 대한 설교자의 확신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설교 준비에 있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본문 선택이다. 설교 준비의 시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강해설교의 원리에 따라 본문 선택이 설교 메시지를 상당 부분 결정하기에 더욱 중요하다. 더욱이 설교자에게 설교의 기회는 무한정이 아니라 제한되어 있기에, 본문 선택은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Sidney Greidanus가 조언하는 대로, 모든 본문은 신적 권위에 있어서는 동일한 무게감을 지니지만, 목회적 효용성에 있어서는 더 중시해야 할 본문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롭다는 의미다.²²⁾

요컨대, 건강한 설교는 건강한 성경관에서 시작된다. 디모데후서 3:16-17은 설교자가 견지해야 할 성경관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신적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목회적 효용성을 품고 있다. 따라서 지혜로운 설교자는 신적 권위와 목회적 효용성을 가진 성경을, 오직 성경만을 설교하

22) Sidney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8), 126. 모든 성경은 담후 3:16이 강조하듯 동일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지만, 설교적인 중요성을 생각할 때는 현실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구약의 율법 본문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다. 특히 설교 횟수의 제한성을 생각할 때, 더 중요한 본문에 더 큰 설교적인 비중을 두는 것이 지혜라고 조언한다.

되, 목회적 효용성에 있어 중요한 본문을 비중 있게 설교할 것이다.

2.2. 성경 해석 방법론

이어서 디모데후서 3:16-17이 설교자에게 요구하는 성경 해석의 원리들을 정리해 보자. 본문 선택에 이어 설교 준비의 두 번째 단계는 본문 해석인데, 본격적으로 성경 메시지를 발굴하는 과정이다. 기억할 점은, 해석의 원리는 성경관과 상당 부분 연동된다. 해석의 대상인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해석자의 태도와 방법론이 달라질 수 있다. 극단적인 예로서 성경을 특정 문화의 인간적인 산물로 보는 견해가 있는데, 이 경우 소위 의심의 해석학이 발동한다.²³⁾ 본문의 문자적 의미보다 이면에 숨은 문화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게 되고, 그것을 본문의 의미로 간주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살펴본 대로, 디모데후서 3:16-17이 정초하는 성경관은 이와는 사뭇 다르다. 본문은 성경을 신적 권위와 목회적 효용성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는데, 바로 이 기초 위에서 건강한 성경 해석 원리가 도출된다.

2.2.1.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

지혜로운 설교자는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로 성경 해석을 시작할 것이다. 기도는 성경 해석으로 들어가는 근본적인 태도와 관문이다. 성령의 영감(*inspiration*)으로 기록된 성경은, 성령의 조명(*illumination*)으로 가장 정확하게 해석되기 때문이다.²⁴⁾ 해석의 목표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다.

23) 예를 들어, 어떤 이들은 성경을 남성우월적 가부장주의 혹은 반동성에 등 특정 문화의 산물로 보고, 성경 내용을 오늘의 상황에 맞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디모데후서 3:16의 성령 영감에 기초한 개혁주의 성경관과 조화되기 어렵다.

24)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5항, “성경의 무오한 진리와 신적 권위를 믿고 확신하는

디모데후서 3:16은 유기적 영감에 의해 하나님께서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로 선포한다. 따라서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밝히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경으로 나아가는 근본적인 자세다.²⁵⁾ Martin Lloyd-Jones의 설교를 연구한 정근두에 의하면, 성경 해석에 있어 이러한 기도의 중시는 Lloyd-Jones는 물론 교회의 역사에 초기부터 오랜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는 어려운 성경 구절을 만나면 금식하며 기도하곤 했다. 루터(Luther)는 열심히 기도하면 반 이상 성경을 연구한 것으로 생각했다. 칼뱅(Calvin)은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다함없는 부요의 샘물을 성도들 앞에 끌어올리는 두레박이라고 믿었다. 아더 핑크(Arthur Pink)는 바로 이점에서 많은 사람이 실패한다고 경고한다.²⁶⁾

기도는 성경을 향해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해석자의 태도를 드러낸다. 정근두의 표현을 빌면, “경외적 접근”이다.²⁷⁾ 그는 Lloyd-Jones의 성경 해석 원리를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고백적 접근, 경외적 접근, 그리고 구원적 접근이다.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갔다는 의미에서 고백적 접근, 두렵고 떨림으로 성경을 대했다는 의미에서 경외적 접근, 그리고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책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말씀으로, 또 말씀과 더불어 증언하시는 성령의 내적 사역을 통해 이루어진다.”

- 25) 기도를 통해 소위 신비적인 의미를 구하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 유기적 영감은 인간 저자의 의도와 상황을 충분히 존중한다.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된 성경이기에 문자적, 문학적, 역사적 해석을 통하여 저자의 의도에 접근하지만, 신적 저자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이기에 신적 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성경의 의미에 보다 가까이 접근한다. 둘은 모순되지 않고 존중과 조화 속에 진전되고 선명한 진리를 보여준다.
- 26) 정근두,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배우는 설교』(서울: 복있는사람, 2016), 77.
- 27) 정근두,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배우는 설교』, 73-78.

의미에서 구원적 접근이다. 여기서 고백적 접근과 경외적 접근은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고백은, 자연스레 해석자의 마음에 성경을 향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아무리 탁월한 해석 기술을 갖추어도 인간적인 문서를 대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성경을 대한다면, 애초에 해석 실패다.

건강한 성경 해석은 기술 이전에 성경을 대하는 태도다. 두렵고 떨리는 겸손이야말로 성경을 해석하는 불가결의 태도다. 시내산 자락의 이스라엘 백성의 경험을 떠올릴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출 20:19)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하나님은 죽을 만큼 두려운 분이었고, 그분의 말씀도 그러하였다. 백성으로선 그 두려움을 감당할 수 없었기에, 대안으로 하나님은 두려운 당신의 말씀을 두렵지 않은 모세의 입술에 담아주셨다. 지혜로운 백성이라면 두려운 주의 말씀이 현상적으로 두렵지 않은 모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지만, 원래의 두려움으로 받을 것이다. 기록된 성경도 마찬가지, 두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 종이 위에 인간 저자의 이름으로 담아주셨다. 지혜로운 해석자라면 원래의 두려움을 품고 성경을 대할 것이다.

2.2.2. 평범한 읽기

유기적 영감은 성경에 대한 평범한 읽기의 기초가 된다. 디모데후서 3:16을 통해 설교자는 성경의 유기적 영감을 믿는다. 유기적 영감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기록될 때 인간 저자의 의지와 이해, 그리고 그의 언어와 표현이 묵살되지 않았음을 고백하는 명명이다. 인간 저자의 마음이 소위 진공 상태가 되고 그의 의지와 이해를 거슬러 기계적으로 성경의 언어가 종이 위에 쏟아진 게 아니라, 그의 이해와 의지 그리고 그의 언어를 심분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다는 의미다.²⁸⁾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의도에 접근하는 가장 일반적인 통로는 인간 저자의 이해와 의도를 추적하는 것이다. 성경은 신적 권위와 출처를 가진 특별한 책이지만, 다른 책에서 사용되지 않은 특별한 신적 언어나 신적 문법이 동원된 책은 아니다.²⁸⁾ 유기적 영감에 의해, 인간 저자가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인간 독자가 평소에 이해할 수 있는 문법에 기초하여 기록되었다. 전달하는 메시지는 신적 기원을 가진 거룩한 메시지만, 전달하는 통로는 이 땅의 언어와 문법이 동원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해석의 차원에서 성경을 읽는 기본 독법은 평범한 읽기다.

평범한 읽기라 함은 원독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음을 의미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인간 저자를 통해 기록된 책이고, 또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일차적으로는 특정한 시대 특정한 독자를 겨냥한 말씀이었다. 이중 저자(double authorship)에 대비되는 이중 독자(double readership)라고 할 수 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말씀 이전에 원독자를 향한 말씀이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독자에게 전달된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이중 저자의 구도에서 설교자가 인간 저자의 의도를 통하여 신적 저자의 의도에 접근한다면, 이중 독자의 구도에서 설교자는 원독자에게 주어진 메시지에 기초하여 현청중을 향한 메시지를 확보한다. 건실한 설교를 위해서는 원독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는다는 의미에서 평범한 읽기가 필수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문맥 안에서 성경에 대한 문법적, 문학적, 그리고

28) Tom Wright, *Paul for Everyone: The Pastoral Letters*, 김명희 역, 『모든 사람을 위한 목회 서신』(서울: IVP, 2014), 160. 유기적 영감의 의미를 톨 라이트는 대중적인 언어로 풀어낸다. “성경의 영감은 개인의 스타일과 시각을 허물어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강조했다.”

29) 한때 일부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했던 ‘바이블 코드’ 식의 암호적인 읽기는 성경을 읽는 올바른 접근이 아니다. 성경의 가르침에 신비가 포함된 것은 분명하지만, 신비스런 언어와 암호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역사적 해석”을 동원한다.³⁰⁾ 이는 모든 고대 문서를 이해하는 기본 도구다. 메시지 전달(communication)을 위한 문서는 작성자와 수신자가 공유하는 당대의 언어와 문법에 의거하여 기록된다.³¹⁾ 그렇지 않으면 메시지 전달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성경을 정확히 읽어내기 위한 기본 통로는 원어와 문법의 이해다. 평범한 읽기를 제대로 수행하려면 결코 평범하지 않은 언어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같은 문자도 문맥과 문학적 장르에 따라 다른 의미 혹은 뉘앙스를 전달한다. 역사적 내러티브 안에서 만나는 언어와 시편에서 만나는 언어는 다르게 이해되어야 하고, 묵시 문학에서 만나는 언어와 서신서에서 만나는 언어도 구별된 접근이 필요하다. 문학 장르와 문맥 자체가 메시지는 아니지만, 메시지를 구성하는 결정적인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장르 오류는 해석 오류로 이어진다.³²⁾ 따라서 건실한 해석을 위해서는 성경 본문의 문학적 특성도 이해할

-
- 30) Robison, 『강해설교』, 23. Robison은 여기에 “신학적 해석”을 추가한다. 신학적으로 본문을 연구한다는 것은 특정 신학이 본문의 의미를 주조한다는 뜻이 아니라, 본문이 기록된 신학적 배경을 고려한다는 의미다.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216. Greidanus도 신학적 해석을 강조하는데, 그에게 신학적 해석은 인간 중심적인 해석에 대비되는 접근이다. 특히 내러티브 장르에서 신학적 해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이 장르에서 인간 존재가 해석의 초점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31) 성경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인간 저자를 통해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다. 해석에 있어 필자는 전통적인 커뮤니케이션 모델에 기초한 저자-지향적 해석학을 견지한다.
- 32) 장르 오류의 대표적인 예는 알레고리화(allegorization)다. 베드로후서가 금하는 “역지로 풀기”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데, 본문이 의도하지 않는 이질적인 메시지의 주입을 초래할 수 있다. Sidney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87-90. Greidanus는 역사적으로 알레고리적 해석에도 일정 부분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한다. 구약에 대한 교부들의 알레고리적 해석이 가진 네 가지 기여를 소개한다. 첫째, 구약에서 어떡하든 그리스도를 설교하려는 순수한 시도의 산물이었다. 둘째, 그들의 설교는 대체로 “믿음의 규칙”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용상 비성경적이지는 않았다. 셋째, 구약을 무시하는 이단들에 저항해서 구약도 기독교적 자산으로 지켜낼 수 있었다. 넷째, 무엇보다 알레고리 장르에서는 알레고리적 해석이 최선이다. 그러나 알레고리가 아닌 본문에 대한 알레고리적 해석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필요가 있는데, 이 또한 평범한 읽기의 범주에 든다.³³⁾ 원독자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역사적 해석도 빠질 수 없다. 성경이 기록된 역사적 배경, 혹은 인간 저자와 원독자가 살았던 시대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할 때 본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다.

개혁신학은 성경의 명료성(*clarity of the Bible*)을 고백한다. 성경의 신적 저자가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성경의 영감은, 성경의 선명성에 대한 신학적 기초가 되기도 한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메시지 전달을 위한 책인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저자라면 메시지가 선명하게 전달되도록 기록했을 것이고, 우리가 믿기로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와 능력을 품으신 분이시다. 성경은 신비한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신비한 언어나 신비한 문법으로 기록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경은 당시 인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학적 원리에 기초하여 기록되었다. 그렇기에 성령의 조명을 구하는 기도 가운데,³⁴⁾ 문맥 안에서 문법적, 문학적, 역사적 해석이라는 평범한 읽기를 사용하여 원독자를 향한 메시지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고, 건설한 적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2.2.3. 구속사적 지평에서 읽기

저자의 의도가 본문의 의미라는 것은 건강한 해석의 기본 원리인데, 여기서 저자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인간 저자인가, 아니면 신적 저자인가? 디모데후서 3:16에 의하면, 이는 양자택일의 사안이 아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의 인간

33)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23. Greidanus는 성경 전체의 형식을 “proclamation(선포)”로 규정하고, 그 아래 장르라는 이름으로 narrative, prophecy, wisdom, psalm, gospel, epistle, apocalypse 등 일곱 장르로 구분한다. 크게 시와 산문 둘로 구분 가능하지만, 설교적인 접근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장르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34) 소위 신비한 의미를 추적하기 위한 신비주의적 기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범한 읽기를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해달라는 기도다.

저자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로마서 10장에서 레위기 18:5(“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을 인용할 때 “모세가 기록”했다고 밝히고, 이사야 53:1(“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을 인용하면서 “이사야가 이르되”라고 분명하게 인간 저자를 밝힌다. 그럼에도 바울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선언한다. 바울의 이해 안에서 신적 저자와 인간 저자는 서로 상충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건강한 설교를 위해서는 인간 저자의 의도에 기초하되, 보다 풍성한(*sensus plenior*) 신적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담아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신적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기본 루트는 인간 저자의 의도다.³⁵⁾ 강해설교자들이 활용하는 문법적, 문학적, 역사적 해석을 통해 인간 저자의 의도에 접근하는데, 이를 통해 인간 저자를 감동하신 신적 저자의 의도에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 신적 저자의 의도는 인간 저자의 의도보다 크다. 당대의 인간 저자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지만, 신적 저자는 보다 넓은 구속사적 지평 속에서 인간 저자를 감동하셨다. 따라서 때로 설교자는 인간 저자가 미처 인식하지 못한 보다 넓은 의미, 즉 구속사적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

구속사적 설교도 그 스펙트럼이 꽤 넓적이다. 적어도 단일 루트는 아니다. Greidanus는 구약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흔적 혹은 예표를 찾기에 집중한다.³⁶⁾

35) Robert H. Stein, *A Basic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배성진 역, 『성경 해석학』(서울: CLC, 2011), 36. 그가 말하는 저자는 기본적으로 인간 저자이고, 인간 저자가 의식적으로 전하려고 한 메시지가 본문의 의미다. “본문은 역사가운데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다. 본문은 나무, 파피루스 식물, 동물 가죽으로부터 진화된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 어떤 때, 어느 곳에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했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읽도록 했다. 분별력이 있는 어떤 사람이 독자들에게 의미가 충만한 무엇인가를 전하려는 목적으로 의식적으로 한 본문을 쓰려고 했다.”

36) Greidanus,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그는 이후 구약 각권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 있는지를 추적한다. 그는 “구속사적 설교”라는 이름보다 “그리스도 설교하기”라는 명칭은 선호한다. 그에게 진정한 구속사적 설교는 인간 중심적 설교에 대비되는 하나님 중심적 설교를 넘어, 구속사의 절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의 중심에 세우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다. 그래야 유대교적 설교와도 구별되

설교자에게 모든 본문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해야 한다는 열심을 요구한다. Graeme Goldsworthy는 성경신학적인 지평 속에서 본문을 읽을 필요성을 역설한다.³⁷⁾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펼쳐 가시는 구속사의 전체적인 조망 안에서 각 본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선포하기를 촉구한다. Bryan Chapell은 인간의 전적 부패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라는 신학적 구도를 본문 해석의 안경으로 삼기를 강조한다.³⁸⁾ Timothy Keller는 소위 실존적인 구속사적 설교를 추구하는데, 인간 실존의 해명되지 않는 난제와 한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됨을 보여주는 설교를 선호한다.³⁹⁾ 구속사적 설교 혹은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라는 이름하에 다양한 접근들이 제안되는데, 설교자들의 건실한 이해와 활용이 필요하다.

필자는 구속사적 설교를, 적용의 영역에 두기를 제안한다.⁴⁰⁾ 해석은 일반적

 는 고유한 기독교 설교가 완성되기 때문이다.

- 37) Graeme Goldsworthy,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The Application of Biblical Theology to Expository Preaching* (Grand Rapids: Eerdmans, 2000). 책명 그대로 그는 성경신학과 강해설교를 긴밀하게 연결시키기를 시도한다.
- 38) Bryan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Grand Rapids: Baker, 1994), 263-311. 그에게 구속사적 설교는 인간의 타락상(FCF)을 드러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신 하나님의 구속 역사만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드러내는 메시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언급되는 자체보다 신적인 해결책의 불가피성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Tim Keller의 구속사적 설교와 유사하다.
- 39) Timothy Keller, *Preaching*, 채경락 역, 『TIM 켈러의 설교』(서울: 두란노, 2016), 67-123. “제2장 매번 복음을 설교하라”와 “제3장 모든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설교하라”에서 그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설교 혹은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를 정리한다. 인간 실존의 결합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임을 설교의 중심에 세우기를 시도한다.
- 40) 채경락, “구속사적 설교, 해석인가, 적용인가?”, 고신신학회, 『고신신학』 제19호 (2017): 323-61. 논문을 통해 필자는 구속사적 설교와 전통적인 저자-지향적 해석학 사이에 일어난 미묘한 긴장을 해소하려고 시도하였다. 먼저, 구속사적 설교는 해석이 아니라 적용의 영역에 속하며, 이것이 둘 사이의 긴장을 해소한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논문은 구속사적 설교가 전통적인 강해설교에 의미 있는 적용의 자산을 공급함에 주목하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구속사적 설교가 나아갈 건강한 적용의 방향으로 실존적인 적용을 제안하였다.

으로 인간 저자의 의도를 추적하는 작업이다. 강해설교자들이 문법적, 문학적, 역사적 해석을 동원하여 추적하는 목표는 인간 저자가 원독자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추적하기 위함이다. 구속사적 메시지는 원독자에게 선포된 메시지를 넘어, 구속사적 진전 속에서 현독자에게 가지는 의미를 추적한다는 점에서 해석보다는 적용의 영역에 두는 것이 지혜롭다.⁴¹⁾ 해석이 원독자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추적한다면, 적용은 현청중에게 주어진 메시지를 추적한다.⁴²⁾ Greidanus를 비롯한 설교학자들이 구속사적 설교를 추구하는 이유도 현청중에게 신적 저자가 주시는 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둘을 연결하면 구속사적 설교는 해석을 넘어 적용의 차원이다. 설교 자체가 해석을 넘어 적용의 영역이라는 점에서 구속사적 ‘설교’라는 호칭이 타당하다. 이에 필자는 구속사적 설교를, 구속사적 적용에 기초한 설교로 정의하기를 제안한다.

2.2.4. 적용적-목양적 읽기

성경을 읽는 목적에 관한 대목인데, 디모데후서 3:16은 설교자를 적용적 읽기로 이끈다.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

41) Walter Kaiser et al, *Four Views on Moving Beyond the Bible to Theology*, 윤석인 역,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성경 적용에 대한 네 가지 관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30. Kaiser는 해석의 차원에서 신약의 의미가 구약에 주입되는 것에 경계를 표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더 큰 유혹은 신약 성경에서 가르치는 진리를 끌어들이어서 성경을 거꾸로 읽고(자의적 해석에서처럼), 문법이나 통사론 자체로 파악할 수 없고 행간에 특별히 기록된 한결 심오한 진리나 더욱 내밀한 의미(*sensus plenior*)와 같은 것이 여기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은 진리에 관한 신약 성경의 굉장히 놀라운 유형들을 현대에 대단히 적절한 형태로 구약 성경에 제공하는 것임에 틀림없지만, 문제는 성령이 그 텍스트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셨느냐는 것이다.” 그는 전통적인 원리화 모델에 의한 적용적인 설교를 추천한다.

42) Greidanus,,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120-21. 그는 점진적 계시(*progressive revelation*)의 차원에서도 적용의 필요성을 파악한다. 더 진전된 계시의 빛 안에서 성경을 보아야 한다는 의미인데, 그에게는 구속사적 설교가 일종의 적용인 셈이다.

다고 선언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라는 동사⁴³⁾의 목적어는 공히 성도들이고, 설교에 접목하면 청중이 목적어가 된다. 성경을 읽는 일차적인 목적은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함이지만, 보다 실제적인 목적은 청중을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주석을 위한 읽기라면 해석 단계에 머물러도 되지만, 설교를 위한 읽기라면 불가피하게 청중 적용으로 나아가야 한다. 설교는 해석을 넘어 적용이기 때문이다.

Donald Sunukjian은 설교자의 사명을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하지만 청중에게 설교한다.”⁴⁴⁾ 설교자의 성경 읽기는 저자에게 신실해야 하지만, 더하여 청중에게도 성실해야 한다. 이를 위한 필수 과정이 적용이다. 적용은 해석 다음에 오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성경을 바라보는 접근의 차이를 가리키기도 한다. 원독자의 입장에서 읽는 과정이 해석이라면, 현청중의 자리에서 성경을 대한다면 적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 순서상으로 적용은 해석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처음부터 적용적인 눈으로 본문을 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용이 곧 해석이라는 주장은 건실한 해석의 기초를 가벼이 여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⁴⁵⁾ 적실한 적용은 탄탄한 해석의 기초 위에서 가능하다.

또한 설교를 위한 성경 읽기는 목양적 읽기여야 한다. 설교는 허공을 향하지

43) 문법적으로는 전치사에 딸린 명사지만, 의미상으로는 동사다.

44) Donald R. Sunukjian,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채경락 역, 『성경적 설교의 초대』 (서울: CLC, 2009), 12-16. 그는 성경적인 설교의 두 축으로 “성경 본문의 참되고 정확한 의미를 제시하기”와 “현대 청중에게 적실하게 제시하기”를 내세운다.

45) Daniel Doriani, *Putting the Truth to Work: The Theory and Practice of Biblical Application*, 정옥배 역,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한다』 (서울: 성서유니온, 2009) 35-45. 해석과 적용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견해들을 소개하는데, “전통적인 견해: 해석 먼저, 적용은 나중에”, “반대제안: 의미가 적용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합: 의미와 적용 간의 투과할 수 있는 장벽”이다. 해석과 적용이 단선적으로 구분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수궁한다.

않고, 구체적인 인격을 향한 선포다. 학자들의 논의가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겨냥한다. 교훈과 책망은 학자의 비판이 아니라 목회자의 권면이 되어야 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것도 이론 제시가 아니라 현장 목양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성경과 더불어 성도들을 아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들과 함께 하는 목회자여야 한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는 목양 명령을 주셨는데, 설교자는 목회 활동과 함께 설교를 통해 그 사명을 감당한다. 요컨대 설교는 목양 활동이다. 건강한 설교는 적용적 읽기에 기초한 목양적 설교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는, 있는 그대로 목양 활동이다. 진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부분을 책망하고 교정하며,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로 이끄는 활동인데,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을 설교한다. 성경이 목양 활동에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다. 네 항목을 두 묶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내용적으로 키아스무스 구조로 분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⁴⁶⁾ 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A. 교훈
- B. 책망
- B'. 바르게 함
- A'. 의로 교육하기

걸을 둘러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를 하나로 묶고, 그 사이에 책망과 바르게 함을 따로 묶을 수 있다. 전자가 “올바른 교리(orthodoxy)”를 지목한다면, 후자는 “올바른 실천(orthopraxy)”을 강조한다.⁴⁷⁾ 흔히 성경 내용을 교리와

46) Towner,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592. 첫째 항목 “교훈”이 나머지 셋을 이끄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볼 수도 있지만,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인 “교육하기”와 상응한다고 분석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책망”과 “바르게 함”이 끼어 있는 구조로 분석한다.

윤리, 혹은 복음과 실천으로 구분하는데, 디모데후서 3:16도 유사한 흐름으로 성경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다. 양자는 설교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성경 메시지의 양축이다. 설교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교리를 가르쳐야 하고, 더불어 성도들을 올바른 실천으로 이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주의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살도록 촉구해야 한다.

성경 읽기의 결과물을 설교학은 주제 문장으로 표현할 것을 요구한다. 주제란,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의 결과물로서 설교를 요약하는 중심 문장이다. 주제 문장의 형태가 설교의 전체적인 기초를 이끌게 되는데, 디모데후서 3:16-17은 직설형(indicative)과 명령형(imperative)의 균형을 요구한다. 앞서 분석한대로 설교는 올바른 교리와 함께 올바른 실천을 담아내야 하는데, 교리가 직설형에 담긴다면 실천은 명령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목양의 언어는 직설형과 명령형을 두루 아우르며 둘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요구한다.

설교학자들 중에는 “Do 설교”와 “Be 설교”라는 이름으로 명령형에 대한 거부감을 표하기도 한다.⁴⁸⁾ 복음 진리에 기초하지 않은, 혹은 복음 진리에서 이격된 단순 윤리적 명령에 대한 거부감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복음이 인간을 향한 명령에 선행하고, 원리적으로 인간을 향한 명령(형)은 하나님이 이루신 복음의 직설(형)에 기초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공감되는 거부감이다. 그러나 명령형이 직설형에 기초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직설형의 중요성이 명령형을 배제할 수는 없다. 본문의 중심 메시지에 따라 적절한 배분과 균형이 필요하다.

47) Mounce, 『목회서신』, 1075.

48) Chapell, *Christ-Centered Preaching*, 280-86. 그는 인간을 모범으로 내세우는 “Be Like” 설교, 모범적인 인간보다 모범적인 행동에 초점을 맞추는 “Be Good” 설교, 그리고 은혜의 방편을 더 열심히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선포하는 “Be Disciplined” 설교가 영혼을 해치는 치명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그는 침언하기를 “Be” 설교 자체(in themselves)는 잘못이 아니지만, “Be” 설교가 홀로(by themselves) 선포될 때 잘못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인간의 노력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설교는 잘못이라는 의미다.

건강한 성경적 설교는 탄탄한 직설형 복음에 기초하여 실천적인 명령형 메시지를 선포한다.⁴⁹⁾

2.3. 설교의 열매

디모데후서 3:16-17은 성경이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기술되었다고 말한다. 17절이 성경이 추구하는 목표 혹은 열매를 요약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ὶνα(히나)’로 시작되는 17절이 내용상 앞 구절의 어느 부분과 연결되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혹자는 17절은 16a절의 신적 영감(“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의 목적을 기술한다고 이해하고, 다른 이는 16b절에 소개된 성경의 유용성(“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의 결과로 이해한다.

‘ὶνα(히나)’-절은 일반적으로 목표를 기술할 수도 있고, 결과를 기술할 수도 있다. 17절의 ‘ὶνα(히나)’가 목표를 기술한다면 신적 영감을 나타내는 ‘Θεόπνευστος(테오프뉴스토스)’에 걸릴 것이고, 결과를 나타낸다면 목회적 유용성을 지시하는 ‘ὠφέλιμος(오펠리모스)’에 걸릴 것이다. 내용적으로는 둘 다 수용 가능하다. 17절이 말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변화는 하나님이 인간 저자를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신 목적이기도 하고, 또 성경이 가진 목회적 유용성의 자연스런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문법적으로는 신적 영감의 목적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⁵⁰⁾ 신적 영감이 있었기에 목회적으로 유용하고, 신적 영감을 통해 목회적으로 유용한 성경을 주신 것은 17절에 기술된 목회적

49) 설교에서 사용될 수 있는 언어 형태에 관하여는 John Carrick, *The Imperative of Preaching: A Theology of Scared Rhetoric*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2)을 참조하라.

50) Mounce, 『목회서신』, 1076-77.

열매를 거두기 위함이다.

내용적으로도, 16a절은 눈앞의 현실이지만, 17절은 아직 미완으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17절은 결과보다는 목표로 보는 것이 좋다. 16a절이 말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은 이미 완성된 눈앞의 현실이다. 성경은 이미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신적 감동이 이토록 귀한 성경을 생산한 것이다. 그런데 17절은 아직 많은 이들에게 미완의 목표다. 아직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지 못했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17절은 결과보다는 목표로 이해하고, 성경을 들고 단에 오르는 설교자가 추구해야 할 목표로 수납하는 것이 지혜롭다.

2.3.1. 목적이 있는 설교

17절은 목적이 있는 설교를 요청한다. 17절에 의하면 성경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성경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면, 그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설교자도 당연히 그 목적을 공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개혁자들이 모토로 삼았던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춘다”는 원리의 실천이다.

이미 많은 설교학자들은 목적이 있는 설교를 이론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Haddon Robinson은 매 설교마다 “측정 가능한(measurable)” 목표를 세울 것을 요구한다. 강해설교 작성법의 기본 모델로 통하는 그의 10단계 작성법은 설교 작성의 기초로 크게 세 문장을 기술하라고 요구하는데, 석의 주제와 설교 주제, 그리고 설교의 목표다. 본문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기술한 것이 석의 주제이고, 석의 주제를 청중의 입장에서 분석하고 적용한 결과물이 설교 주제다. 그리고 그 날의 설교가 추구할 목표 혹은 열매 맺고자 하는 결과를 기술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게 바로 목표 문장이다. Robinson은 목표 문장에 관하여 “청중으로 하여금”으로 시작할 것을 권면하는데, 설교의 목표

는 청중의 인격과 삶에서 맺혀져야 하기 때문이다. “측정 가능한”이라는 말이, 그가 추구하는 설교의 목표가 얼마나 구체적인지를 보여준다.

대다수 설교학자들은 설교 작성의 중심에 설교 주제를 세우는데, 일부 학자들은 설교의 목표를 작성의 중심에 세우기를 추천한다. 예를 들어, Jay Adams는 설교 주제를 기술하기보다 그 날 설교의 목표를 기술하고, 그 목표를 향해 설교를 작성하고 선포하라고 요구한다. 설교의 주제를 선포하는 이유도 결국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Ramesh Richard는 그의 7단계 강해설교 작성법의 중심에 설교의 목적을 배치한다. 그의 작성 단계는 크게 줄이기와 늘리기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성경 본문을 줄여서 한 문장짜리 본문 주제로 줄이고, 이걸 청중에게 적용하여 한 문장짜리 설교 주제로 변환시킨 후에 설교문으로 펼쳐가는 방식이다. 그런데 이 둘을 연결하는 고리가 바로 설교의 목표다.⁵¹⁾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 필자도 십분 공감하지만, 설교 작성의 중심에는 목표보다 주제를 세우기를 추천한다. 설교가 선포해야 할 주제를 분명하게 기술하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목표가 눈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사격에 비유하면, 표적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눈의 초점을 표적에 맞추면 안 된다. 오히려 가능자와 가능쇠에 초점을 맞출 때 표적을 정확하게 조준할 수 있다. 추구해야 할 목표가 중요하지만, 설교자의 관심의 초점을 선포할 주제에 집중할 때 오히려 목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신실하게 다가갈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디모데후서 3:17이 가르치는 대로 지혜로운 설교자는 목표 지향적인 설교를 실천한다.

51) Ramesh Richard, *Scripture Sculpture*, 정현 역,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준비』 (서울: 디모데, 1998). 그는 설교 작성 단계를 인간의 신체 구조에 비유하는데, 설교문이 이 몸이라면 설교 개요는 뼈대요, 설교 주제는 심장에 비유하는데, 설교의 목표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뇌(brain)라고 말한다. 설교 작성 전반을 지휘하는 지휘자라는 의미를 담은 듯하다.

2.3.2. 사람 세우기

건강한 설교의 목표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단지 정보 전달이 아니라, 사람을 겨냥해야 하고, 사람을 세워야 한다. 17절은 성경의 목표를 기술하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로 시작한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 성경의 목표이고, 성경적인 설교가 추구할 목표라는 의미다.

17절은 번역과 이해에 있어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구절이다. 먼저 주어인 “하나님의 사람”을 누구로 봐야 할지부터 의견이 갈린다. 성도 일반으로 보는 입장이 있는가 하면, 디모테와 같은 사역자에 국한하여 보기도 하고, 둘을 동시에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입장도 있다.⁵²⁾ 그리고 술어인 “온전하게”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를 내용상 분리해야 할지, 하나로 연결해서 보아야 할지에 관해서도 입장이 갈린다.⁵³⁾ 개역개정은 둘을 분리하여 번역하지만, 일부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은 둘을 연결하여 “모든 선한

52) Towner,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592-93. 사역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근거는 대체로 두 가지다. (1)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외 없이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선지자를 가리켰고, (2) 딤후전 6:11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사역자 디모테를 국한하여 가리킨다. 반면, 성도 일반을 포괄적으로 가리킨다는 입장이 내세우는 근거는 다음 세 가지다. (1)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기독교 지도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2) 단락의 주된 관심은 성경의 능력이 구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안이다. (3) 17절의 결론은 “모든 선한 일”인데 사역에 국한시키기엔 너무 일반적인 개념이다.

53) NIV는 “온전하게”와 “능력을 갖추게”를 하나로 연결하여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로 번역한다. 반면 KJV는 “perfect, th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로 번역하여 둘을 구분하는 뉘앙스를 준다. NASB는 “adequate, equipped for every good work”로 번역하여 문법적으로는 구분하면서도 내용상 하나인 듯 여지를 남긴다. 한글 성경도 유사한 스펙트럼을 보이는데, 개역개정은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으로 번역하여, 성도의 온전함과 능력 갖추음을 따로 구분한다. 새번역은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번역하여 의미상 둘이 하나로 연결되는 뉘앙스를 준다. 공동번역은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과 준비를 갖추게”로 번역하여 하나로 이해한다.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로 번역한다. 둘을 하나로 연결할 때에는 대체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역자로 국한되는 뉘앙스를 준다. 문법적으로는 양자 모두가 가능해 보이기에 연구자의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필자는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에 관하여는 둘 모두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려고 한다. 필요에 따라 성도 일반과 사역자를 구분할 수 있지만, 둘의 경계는 근본적이지도 항구적이지도 않다. 사역자는 태어나기보다 길러진다. 사역자란 존재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성경을 통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 지속적인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통해 신앙 인격이 성숙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사역자가 된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역자와 더불어 성도 모두를 가리키는 단어로 이해하는 것이 지혜롭다.

이제 우리가 추구할 성경적인 설교의 목표 한 가지를 기술할 준비가 되었다. 모든 성도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설교자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하나님의 사람의 온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앙적인 인격 형성 (spiritual formation)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개별 설교에 목표를 설정하듯이, 설교 사역 전체를 조망하며 성도들의 인격 안에 열매 맺기를 원하는 목표를 미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설교와 심방 사역의 적절한 협업을 상정하는 것도 전략적이다. 설교는 집단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성도의 성장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진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개별적인 진단과 양육이 불가피하다. 개인 양육과 심방을 통해 성도들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고 설교에 적절히 반영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설교의 열매는 설교집이 아니라 성도의 인격의 삶으로 결실되어야 한다.

2.3.3. 일꾼 세우기

성경적인 설교가 추구할 두 번째 목표는 일꾼을 세우는 것이다. 앞서 필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사역자뿐만 아니라 성도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리하였다. 이 연장선에서 “온전하게”와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도 분리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하여 “온전하게”를 성도 일반을 향한 성경의 목표로 보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는 사역적인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⁴⁾ 먼저 성도로서 온전하게 되고, 이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흐름이다.

“모든 선한 일”은 기본적으로 사람 양육으로 이해할 수 있다. 성숙한 성도들이 맺어야 할 열매는 고상한 신앙 인격의 열매와 더불어 무엇보다 사람 열매다. 지상명령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 “가서 제자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를 양육함으로써 자신의 제자됨을 증거해야 했다. 이는 주님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시던 그 날의 원리와 상통한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선언과 함께 제자들을 부르셨다. 주님은 당신이 제자를 남기셨듯이, 제자들도 다른 제자를 양육하여 남기기를 기대하셨다.

성경에 기초한 기독교 교육이 추구하는 열매는,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다. 이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지상사명과 더불어,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사명이기도 하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일종의 충성된 사람의 연쇄 사명을 당부한다.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1-2) 먼저 디모데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든든하게 서기를 당부하고는, 자신에게 받은 가르침

54) 문법적으로 다양한 역본들은 ‘ἄριστος(아르티오스)’ 다음에 쉼표를 첨부함으로써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 ‘ἄριστος(아르티오스)’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에 걸리지 않게 분리하는 것이다.

을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고 권면한다.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차원에서 필자는 Andreas Köstenberger의 정리를 적극 수용한다. 그는 디모데후서 3:16-17을 기초로 건강한 기독교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1) 합당한 기독교 교육은 (단순히 인간적인 원리 혹은 가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성경에 기초해야 한다; (2) 그것은 (단지 격려 일변도에 집중하기보다) 지도와 교정 모두를 포함하여 철저해야 한다—참된 영적 성장에는 지름길이 없다. (3) 그것은 단지 개인의 성장 혹은 지적인 자극에 머물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사역을 위한 준비여야 한다.⁵⁵⁾

설교가 추구해야 할 열매 역시, 사람을 남기는 사람이다. 설교는 교회 교육의 최전선에 서 있다. 소그룹 활동을 통해 보다 세밀한 양육이 이루어지지만, 교회 교육의 기초를 이끄는 것은 역시 설교다. 설교를 통해 성숙한 성도가 감당해야 할 사명, 즉 사람을 남기는 사람에 대한 비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할 필요가 있다. 내가 저 사람을 남기고, 저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남기는 충성된 사람의 거룩한 연쇄가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이어져야 한다.

55) Andreas Köstenberger, *2 Timothy,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12. (Grand Rapids: Zondervan, 2006), 591

3. 나가며

디모데후서 3:16-17은 성경에 대한 말씀이지만, 있는 그대로 설교를 향한 지침이기도 하다. 성경을 가르쳐 온 사도 바울이, 그를 이어서 성경을 가지고 목회하고 설교할 후배 사역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문자적으로 본문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목회적 유용성, 그리고 성경이 추구하는 열매를 정리하지만, 설교자에게 적용하여 설교자의 성경관, 성경 해석 방법론, 그리고 설교가 추구할 열매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

강해설교는 디모데후서 3:16-17의 설교적 적용이라고 볼 수 있다. 먼저, 강해설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가 선포하는 설교다. 성경을 설교의 중심에 세우는 설교를 강해 설교로 부를 수 있지만, 이면에는 성경을 대하는 설교자의 태도가 결정적이다. 강해 설교자가 성경을 설교하는 이유는, 단지 성경이 좋은 말씀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성경을 향한 이 두려운 믿음이 강해설교자의 성경 해석과 설교 실천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에, 성경으로 나아가는 설교자의 첫 자세는 기도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이기에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만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더불어 성경은 사람의 손으로 기록되었기에 평범한 읽기의 원리를 무시하지 않는다.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영감은 설교의 지평을 일반적인 문법적, 문학적, 역사적 범주를 넘어서 구속사적 영역으로 확대한다. 인간 저자의 이해를 넘어 신적 저자의 의도가 성경을 영감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신적 저자가 인간 저자의 의도를 유기적으로 존중하였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강해 설교와 구속사적 설교는 공존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디모데후서 3:17이 정리하는 성경의 기록 목적은, 있는 그대로 설교가 추구해야 할 열매이기도 하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고, 나아가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충분한 역량을 갖추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되었다. 이러한 성경에 기초한 설교 역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해야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의미 있는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한다. 성경을 들고 단에 오르는 설교자는 이 목표를 마음에 그리고 올라가서, 그 열매를 향해 선포해야 할 것이다. 디모데후서 3:16-17이 정초한 설교의 이상이, 주의 은혜로 현실 강단에서 오롯이 실현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 고려신학대학원(고신대 신대원) 교수진. 『개혁주의를 말하다』. 서울: SFC, 2011.
- 김영봉. 『설교자의 일주일』. 서울: 복있는사람, 2017.
- 임영호.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 서울: 영문, 2008.
- 임영호.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 엡 4:11-16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제13호 (2011): 15-65.
- _____. “사도 바울의 사역관: 골로새서 1장 24-29절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제19호 (2017): 287-321.
- _____. “성경 교육의 중요성: 딤후 3:15-17을 중심으로.” 『고신신학』 제15호 (2013): 133-91.
- 정근두.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배우는 설교』. 서울: 복있는사람, 2016.
- 채경락. “구속사적 설교, 해석인가, 적용인가?” 『고신신학』 제19호 (2017): 323-61.
- 황원하. 『목회서신주해』. 서울: 교회와 성경, 2014.
- Carrick, John. *The Imperative of Preaching: A Theology of Sacred Rhetoric*.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Trust, 2002.
- Chapell, Bryan. *Christ-Centered Preaching: Redeeming the Expository Sermon*. Grand Rapids: Baker Books, 2005.
- Doriani, Daniel. *Putting the truth to work: The theory and practice of biblical application*. 정옥배 역. 『적용, 성경과 삶의 통합을 말하다』. 서울: 성서유니온, 2009.
- Goldsworthy, Graeme. *Preaching the Whole Bible as Christian Scripture: The Application of Biblical Theology to Expository Preaching*. Grand Rapids: Eerdmans, 2000.
- Greidanus, Sidney. *Preaching Christ from the Old Testament: A Contemporary Hermeneutical Method*. Grand Rapids: Eerdmans, 1999.

- _____. *The Modern Preacher and the Ancient Text: Interpreting and Preaching Biblical Literature*. Grand Rapids: Eerdmans, 1988.
- Kaiser, Walter. et al. *Four Views on Moving Beyond the Bible to Theology*. 윤석인역. 『성경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성경 적용에 대한 네 가지 관점』. 서울: 부흥과개혁사, 2011.
- Keller, Timothy. *Preaching*. 채경락 역. 『팀 켈러의 설교』. 서울: 두란노, 2016.
- Köstenberger, Andreas. *2 Timothy*. The Expositor's Bible Commentary, Vol. 12. Grand Rapids: Zondervan, 2006.
- Mounce, William D. *Pastoral Epistles*. 채천석·이덕신 역. 『목회서신』. 서울: 솔로몬, 2009.
- Richard, Ramesh. *Scripture Sculpture*. 정현 역. 『삶을 변화시키는 7단계 강해설교 준비』. 서울: 디모데, 1998.
- Robinson, Haddon W. *Biblical Preaching*. 박영호 역. 『강해설교』. 서울: CLC, 2007.
- Shaw, Robert. *An Exposition of the Confession of Faith - Westminster Assembly of Divines*. 조계광 역.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해설』. 서울: 생명의 말씀사, 2014.
- Stein, Robert H. *A Basic Guide to Interpreting the Bible*. 배성진 역. 『성경해석학』. 서울: CLC, 2011.
- Stott, John R. W. & Greg Scharf. *The Challenge of Preaching*. 박지우 역, 『존 스토티의 설교: 말씀과 현실을 연결하는 살아있는 설교』. 서울: IVP, 2016.
- Sunukjian, Donald R. *Invitation to Biblical Preaching: Proclaiming Truth with Clarity and Relevance*. 채경락 역. 『성경적 설교의 초대』. 서울: CLC, 2009.
- Towner, Philip H. *The Letters to Timothy and Titus*. Grand Rapids: Eerdmans,

2006.

Wright, Tom. *Paul for Everyone: The Pastoral Letters*. 김명희 역. 『모든 사람을 위한 목회서신』. 서울: IVP, 2014.

York, Hershael. *Preaching with Bold Assurance: A Solid and Enduring Approach to Engaging Exposition*. Nashville: Broadman & Holman, 2003.